

9주-2회차: 행동주의2



J. B. Watson과 행동주의심리학

09-8-1

안녕하십니까. 9주 2회차로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2회 차 강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시조 격인 왓슨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9주-2회차 학습 목차



4. J. B. Watson
 - 4.1. Watson의 생애
 - 4.2. Watson의 기본입장
 - 4.3. 공포조건 형성과 정신의학의 연결
 - 4.4. 학습과 본능, 육아
 - 4.4. 광고심리학
5.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반응:

09-8-1

9주 2회 차 학습 목차를 보시면 왓슨의 생애와 왓슨의 기본 입장을 기술하고 공포조건형성과 정신의학의 연결 학습과 본능, 육아에 관한 왓슨의 연구, 그 다음에 광고심리학에 간 왓슨의 활동 내용,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2강 file no.3

4. John Broadus Watson (1878-1958)



His Life in Words and Pictures:

<http://facweb.furman.edu/dept/psychology/watson1.htm>

Childhood
At Furman
At Chicago
At Johns Hopkins
Career in Advertising
On the Farm
Watson Remembered
Additional Resources



첫 슬라이드로 들어가면 왓슨에 대한 사진이 나오는데, 이걸 링크가 되어있으니까 왓슨의 생애의 여러 단계에서 내용들이 웹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 클릭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9-2강 file no.4

4.1. Watson의 생애



- 생애사
- <http://www.muskingum.edu/~psych/psycweb/history/watson.htm#Biography>
- 이론
- <http://www.muskingum.edu/~psych/psycweb/history/watson.htm#Theory>

00-0-1

그 다음 슬라이드도 쉬어가는 학습인데, 각자 다음의 링크 사이트1)를 클릭해서 왓슨의 생애와 그의 이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9-2강 file no.5

1) 생애사: <http://www.muskingum.edu/~psych/psycweb/history/watson.htm#Biography>
이론: <http://www.muskingum.edu/~psych/psycweb/history/watson.htm#Theory>

Watson 생애 관련 문헌



Bergmann, G. (1956). The contributions of John B. Watson. *Psychological Review*, 63, 265-276. Brewer, C. L. (1991). Perspectives on John B. Watson. In G. A. Kimble, M. Wertheimer, & C. L. White (Eds.), *Portraits of pioneers in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uckley, K. W. (1989). *Mechanical man: John Broadus Watson and the beginnings of behaviorism*. New York: Guilford Press.

Hartley, M., & Commire, A. (1990). *Breaking the silence*. New York: Putnam.

Watson, J. B. (1936). John Broadus Watson. In C. Murchison (Ed.), *A history of psychology in autobiography* (Vol. 3, pp. 271-281).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09-6-1

그 다음 슬라이드도 왓슨 생애 관련 문헌²⁾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장 file no.6

미국 South Carolina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 목사이지
만 복신자인 아버지. 헌신적인 어머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진 나오는 것을 보면 왓슨은 미국 싸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기독교를 제대로 신봉하지 않는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집 사진도 나오구요.

2) 왓슨의 생애 관련 참고 문헌:

1. Bergmann, G. (1956). The contributions of John B. Watson. *Psychological Review*, 63, 265-276. Brewer, C. L. (1991). Perspectives on John B. Watson. In G. A. Kimble, M. Wertheimer, & C. L. White (Eds.), *Portraits of pioneers in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 Buckley, K. W. (1989). *Mechanical man: John Broadus Watson and the beginnings of behaviorism*. New York: Guilford Press.
3. Hartley, M., & Commire, A. (1990). *Breaking the silence*. New York: Putnam.
4. Watson, J. B. (1936). John Broadus Watson. In C. Murchison (Ed.), *A history of psychology in autobiography* (Vol. 3, pp. 271-281).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9-2장 file no.7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게으르고 순종을 잘 안하고 좋지 않은 학생이라고 기술할 두 번 체포당할 싸움 흥기 발사



6세에 Furm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별 불일없는 학생 생활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과목들이
 심리학 과목들
 철학 교수의 지시를 어겨서 과목 낙제
 -> 대학을 5년간 다님

09-2-1

왓슨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게으르고 순종을 잘 안하고 좋지 않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 체포를 당할 정도로 왈가닥이었고, 충기를 발사해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6세에 포어만 대학교에 입학해서 별 불일 없는 학생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다닌 셈이죠.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과목들이 심리학 과목이고 철학 교수의 지시를 어겨서 낙제해서 대학을 5년씩이나 다녔습니다. 그냥 놀고 다른 일을 한 셈이죠. 그러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갔는데,

9-2장 file no.8

쉬카고 대학 시절



1900년에 쉬카고 대학에 주머니에 50달러만 갖고 도착,
 수위, 웨이터, 사육사로 일함.
 Dewey의 철학 강의를 들었으나, 이해 못하겠다고 선언함. 대신에 Angell 교수 밑에서 실
 험심리 박사과정.
 1903년, 우등 학생으로 졸업, Angell 의 조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철학 -> 심리학 -> 신경학
 Dewey, Angell 등을 비롯한 훌륭한 학자들을 만나고
 미국에서 쥐를 가지고 연구한 초기 학자들 중 한 사람
 인 H. H. Donaldson와 유명한 생물학자인 Loeb을
 만나서 영향받음 :
 쥐 연구, 미로 연구 등
 Loeb의 신경계 연구 등이 왓슨에게 영향줌

09-2-1

시카고 대학 시절을 보시면 시카고 대학에 50달러만 가지고 도착해서 수위도 하고 웨이터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듀이의 철학 강의를 들었지만 너무 난해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대신에 철학과 심리학을 연결하던 엔젤 교수 밑으로 가서 실험심리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3년 만에 우등 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엔젤의 조교로서 활동을 하고 교수로 있었는데, 철학, 심리학, 신경학 셋에 관심이 점차 생겼습니다. 왓슨은 듀이라든지 엔젤 같은 훌륭한 학자들을 시카고 대학에서 만나고 쥐를 가지고 연구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인 H.H. Donaldson과 유명한 생물학자인 Jacques Loeb을 만나서 이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쥐 연구도 하고 미로 연구도 했는데, Loeb의 신경계 연구가 왓슨에게 영향을 주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2강 file no.9

Johns Hopkins 대학 시절

쉬어가는
학습

1908년에 30세에 Johns Hopkins 심리학과 교수 및 실험실책임 교수로 취임
Yerkes와 함께 동물 실험 연구 기기를 만들음
-> 동물 변별실험 기구
1909: Psychological Review: 편집장
1910년에 Journal of Animal Behavior 시작
1912에 심리학과를 별도 시작, 학과장, 심리학회 회장 역임.
1913: Columbia대학에서의 강의: 행동주의 선언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창립자.

09-2-1

이후에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갔는데, 거기서 교수로 취임해서 실험 연구기기를 만들고 동물 변별 학습 실험도 하고 이러저러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9-2강 file no.10

쉬어가는
학습

이후 대학원생 Rosalie Rayner과 결혼, 이 스캔들로 학교에서 사임하게 됨 -> 광고계로 진출
Rosalie Rayner



09-2-1

그 이후에 대학원생 로잘린 레이너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로는 대학계에서 상당히 큰 스캔들이어서 학교에서 사임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를 떠나서 광고계로 진출했습니다.

9-2강 file no.11

4.2. Watson 의 기본입장



1913년 2월 13일부터 컬럼비아대학에서 “행동주의자가 보는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일련의 강의를 함. 1913년에 Psychological Review 지에 같은 제목으로 실림

<http://psychclassics.yorku.ca/Watson/views.htm>

Classic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사이트의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 John B. Watson (1913). First published in *Psychological Review*, 20, 158-177.

이를 1943년에 책으로 출판.

00-2-1

그 다음 광고계로 나가기 전에 전개한 심리학에 대한 왓슨의 기본입장을 보면, 1913년 2월 13일부터 컬럼비아 대학에서 행동주의자가 보는 심리학[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라는 강연을 했는데, 1913년에 [Psychological Review]지에 같은 제목으로 이 강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 강의내용 즉, 행동주의가 보는 심리학이라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출발선을 그은 기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2강 file no.12



구조(구성)주의와 기능주의 둘 다, 심리학을 의식에 대한 연구로 잘못 개념화; 둘 다, 내성법을 인정하는 잘못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의식중심의 심리학에서는 동물연구가 곤란

- 동물심리학이 동물의 지능에 대하여 의인화하고 에 피소드 중심으로 연구하는 전통을 버리고 동물행동 연구이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심리학이 인간 의식에 대하여 내성보고 중심으로 연구하는 전통을 버리고, 의인화도 버리고, 인간 행동을 내성법이 아닌 객관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과학이 되어야 함.

00-2-1

그러면 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 주장의 요점이 무엇이었나 하면, 그는 이전에 있었던 분트나 티치너나 뷰르즈부르크 학파들의 구성주의 심리학이라든지 미국의 기능주의 심리학 등을 비판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두 심리학 모두 다 심리학을 [의식에 대한 연구]로 잘못 개념화한 그러한 접근들이며, 둘 다 내성법을 인정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의식 중심의 심리학에서는 동물 연구가 곤란하고, 심리학이 의식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동물 심리학에서 동물의 지능을 논하면서 동물이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왜 그렇

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동물도 생각을 해서 했다고 설명하는 그런 의인화적 에피소드 형식의 전통(로마네스 전통)을 버리고 동물 심리학은 동물 행동 연구를 해야 한다고 왓슨은 주장했습니다. 심리학이 인간의 의식에 대한 내성보고 중심으로 얘기한 과거의 구성주의, 분트 식 전통을 버리고, 또한 동물심리학의 의인화 하는 그런 접근도 버리고 인간의 행동을 내성법이 아닌 객관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과학이 되어야하고 동물 심리학에서 하듯이 동물들의 행동 중심으로 연구해야하는 그런 접근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2강 file no.13



심리학의 범위와 방법의 수정 요구

행동연구:

내성법 버리기

- 의식과는 관계 없이 행동이 가치가 있고 연구하여야;
- 의식 개념은 일종의 해석적 작업. 동물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물의 의식내용을 억지로 만들어 낼 필요 없음
- 동물행동의 연구와 인간 의식의 연구 사이의 간격이 있는데, 심리학이 변해야.
- 객관적이고 자연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동물과 인간의 뚜렷한 구별을 하지 말아야
- 심리학의 목표는 행동을 예언, 통제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

09-2-1

즉, 심리학의 범위와 방법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성법이 심리학의 주요 연구 방법이었던 과거의 연구 관행에서 내성법을 버리고 행동연구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식과는 관계없이 행동 자체가 가치 있고 연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여 과거의 분트 식의 구성(구조)주의 심리학에서는 의식 중심으로 연구가 됐는데, 그 의식과 관계없이 행동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가치 있고 연구해야 되는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트 식 연구의 중심인 의식 개념은 일종의 해석적 작업에 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관찰 할 수도 없는 것을 관찰하고 그래서 일종의 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에 의하면, 동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의 의식을 억지로 만들어 낼 필요 없이 동물의 행동만 관찰해서 연구를 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의 연구와 인간 의식의 연구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심리학이 이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이고 자연 과학으로써의 심리학이 되려면 동물과 인간의 뚜렷한 구별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분트식의 심리학에서 동물과 인간을 확연히 구별을 해놓고 심리학이 인간중심의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물심리학은 동물 중심의 심리학이었는데, 동물과 인간의 뚜렷한 구별을 하지 말고 심리학에서 동물과 인간을 다 연구해야 되고 그러한 연구에서는 행동이 연구주제가 되어야 되고 심리학의 목표는 행동을 예언 통제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내성법이 아닌 실험실에서 행동 관찰을 통해서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왓슨은 구성주의와 기능주의를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의도
있음

1914: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Psychology

그러나 1913년 당시나 직후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미약하였
음

1919년 1차대전이 시작되자, 티치너 등의 내성법 심리학은
쓸모 없게 되고, 구체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이 요
구됨

-> 개인 적성, 능력 검사 등의 인력선발, 교육 등의 문제와
연관된 심리학이 요청되고, 행동주의 경향 바탕이 생겨
남

09-2-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왓슨은 말하자면 구성주의 심리학과 기능주의 심리학을 한꺼
번에 공격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론을 제기 했던 것이지요. 1914년에 행동이라는 책을 썼는
데, 비교심리학적 동물의 개론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썼습니다. 1913년 당시나 직후에 이러
한 행동주의 심리학을 왓슨이 전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당장은 미약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의식 중심의 심리학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
다. 1919년 1차 대전이 시작되자 티치너 등의 내성법 심리학은 쓸모없게 되고 구체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이 요구되고 개인적성, 능력검사 등의 인력 선발, 교육 등에 연관된
심리학이 요청되어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경향과 바탕이 생겨났습니다.

후에 다른 주 강의에서 이야기 될 것인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심리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의식이 뭐냐 마음이 뭐냐 의식의 요소를 내성법으로 분석한다
등의 독일식의 심리학이 판을 쳤지만,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심리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즉 응용 심리학, 구체적
실험적 심리학이 필요하게 되어서 애매한 의식 분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수
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이 심리학의 주 영역으로 부각
될 수 있게 되었고 군의 인사 선발 등의 개인 능력 검사라든지 그런 것이 심리학에서 강조
되었습니다.



<http://www.brynmawr.edu/Acads/Psych/rwozniak/watson.html>

John Broadus Watson and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Behaviorist*

Robert H. Wozniak (Bryn Mawr College)

왓슨의 학문적 세계 개관과 1919년에 발간된, Watson의 책 내용 소개: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Behaviorist.

09-2-1

그 다음 슬라이드는 쉬어가는 학습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성법이 문제 있는 이유:



1. 경험적 근거:

- 경험적 연구에 의해 답할 수 없는 것을 다루고 있음
- 감각 종류가 몇 개인지, 의식내용요소 속성이 무엇인지 의견 일치 없음

2. 철학적 근거

- 자연과학적 방법은 연구결과가 다른 연에 의해 반복 재생 가능해야 하는데, 내성법은 그렇지 못함. 고로 과학적 방법이 아님

3. 실용적 근거:

- 동물의 행동만 관찰하면 그것으로도 충분인데, 부가적으로 동물들이 어떤 생각, 느낌을 가지는지 하는 동물 마음을 설정하고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부가적 지식) 못됨. 현실에서 내성 결과물 실제로 응용 적용할 분야가 없음

09-2-1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왓슨이 주장하기를 내성법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해야 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성법은 경험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성법을 사용하는 심리학은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각 종류가 몇 개인지 의식 내용 요소 속성이 몇 개인지 내성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경험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기도 곤란한 것을 연구 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라는 이유에 의해서 내성법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 근거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자연 과학적 방법은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에 의해서 반복 재생 가능해야 하는데 내성법은 그렇지 못했다 라는 측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성법에 의한 접근은 왓슨에 의하면 과학적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실용적 근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동물의 행동만 관찰하면, 그 것으로도 충분한테 부가적으로 동물들의 어떤 생각, 느낌, 동물들의 의식, 이런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즉, 부가적인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내성 분야를 실제로 응용할 분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성법이 문제가 있으니 심리학에서 내성법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라는 것인데, 하여간 가장 큰 이유는 경험적 근거, 객관성을 지니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9-2강 file no.17



<연구 접근 논리>

- 인간과 동물은 적응하는 유기체임, 고로 적응하는 행동만 연구하면 되고 의식을 연구할 필요 없음, 행동을
- <기술>, <예언>, <통제> 하면 되지 다른 심리적 설명 필요 없음, 생리화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충분

09-2-1

그 다음에 왓슨은 연구 접근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과 동물은 적응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고로 적응하는 행동만 연구하면 되고 의식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동을 기술하고 통제하면 되지 다른 애매한 개념인 [의식] 같은 것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행동을 생리 화학적 용어으로써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것이 왓슨의 행동주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9-2강 file no.18



심리학의 주제

- 심리학은 의식에 대한 언급을 모두 버려야 함, 의식이라든가, 심적 상태, 마음, 내용, 내성적으로 확인가능함, 심상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
- 이 용어들은 그저 자극-반응, 습관의 형성, 습관의 통합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음,
- 심적 내용은 아무런 기능적 의미가 없음,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작용 불가
- 말초주의 peripheralism:
 -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종속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없음,
 - soul 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두뇌피질은 자극과 반응의 연결적거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
- 행동의 기술, 예언, 통제에서는 soul과 brain이 아무런 역할을 못함

09-2-1

그래서 왓슨은 심리학의 주제에 대해서 이전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제기했는데, '심리학은 의식에 대한 언급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의식이라든지 심적 상태, 마음 내용 이런 것은 내성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하는데 그 다음에 심상 등의 용어를 사용하

지 말아야하고, 그러니까 심적 상태, 마음 내용, 심상 이런 용어들을 버리고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바깥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것은 제시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습관 형성 이런 것들이 됩니다. 분트의 심리학이 다루었던 의식과 같은 심적 내용은 아무런 기능적 의미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용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으로써 심적 내용이 작용할 수가 없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왓슨의 행동주의는 일종의 말초주의라고 볼 수 있기도 하는데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위 수준에서 무엇을 논할 것이 없고 하위수준에서 근육반응이라든지 하위 신경계의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Soul)’이라든지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두뇌피질은 자극과 반응의 연결 정거장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이전에 분트가 생각하기를 두뇌에서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와 연결이 일어나고 그것을 의식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의식하는 것을 분석한다 라고 했는데, 두뇌는 사실은 자극과 반응을 연결하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기술하고 예언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영혼과 마음과 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말단, 근육 신경 반응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9-2장 file no.19



<http://psychclassics.yorku.ca/Watson/views.htm>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
John B. Watson (1913).

First published in *Psychological Review*, 20, 158-177
1916에 APA 회장후보 연설

<http://psychclassics.yorku.ca/Watson/emotion.htm>

CONDITIONED EMOTIONAL REACTIONS
By John B. Watson and Rosalie Rayner(1920)

First published i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1), 1-14.

09-2-1

다음 슬라이드는 각자 살펴보기로 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그런 왓슨 입장을 적용한 공포조건형성과 이것을 정신의학에 적용하는 것이 제시되는데, 공포조건형성을 연구하게 된 것도 우연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험 공간이 좁아져서 그걸 찾는 과정에서 정신의학클리닉의 소장이었던 사람이 자기 연구소 공간을 사용해서 클리닉 중심의 연구를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조건반응연구를 임상적 상황에 적용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17년에 인간의 기본정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1920년에 레이너와 정서의 조건형성 연구를 발표했는데, 슬라이드 #21에 그 연구 논문 상세 내용이 영문으로 있습니다.

9-2강 file no.20

4.3. 공포조건 형성과 정신의학의 연결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실의 공간이 감소한 시점에서 존스홉킨스의 Phipps Psychiatric Clinic의 소장이었던 A. Meyer (심리생물학 창시자)의 제안을 받아서 이 클리닉의 공간에 실험실을 확장하고, 조건반응 연구를 임상적 문제에 적용하는 연구를 함

1917년에 인간의 기본정서에 관한 논문 발표

1920에 Rayner와 정서의 조건형성 연구 발표함

00-8-1

9-2강 file no.21



Watson, Rayner and Little Albert

Watson and Rayner (1920) taught a young boy named Albert to become afraid of a gentle white rat.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Albert was unafraid of the white rat and played freely with the animal. While he was playing with the rat, the experimenters frightened the child by making a loud noise behind him. Albert was startled and began to cry. Thereafter, he avoided the rat and would cry whenever it was brought close to him. In Pavlovian terms, a bond had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sight of the rat (CS) and the arousal of Albert's autonomic nervous system (CR).

Once this S-R bond was fixed, fear could also be elicited by showing Albert any furry object. This is called stimulus generalization. Stimulus generalization is defined as the tendency to make the same response to two similar stimuli.

Watson and Rayner showed that fears could be learned or acquired. If Pavlovian techniques can be used to induce fear, then it is likely that they can be used to remove fears. That brings us to our next story, the "Tale of Greg and the Empty Toilet Paper Roll."

00-8-1

9-2강 file no.22



00-8-1

그 다음 슬라이드 사진에서 보시면 공포조건형성을 하는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왓슨이 대학원생 레이너와 결혼해서 낳은 알버트라는 아이에게 공포조건형성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9-2장 file no.23



00-0-1

9-2장 file no.25

공포 조건 형성 실험

Albert B. : 생후 9개월, 큰소리만 무서워하는 아이

첫시행: 쥐 -아이 손 뺨음 - 큰소리

1주후: 주-큰소리 짝 5회 제시 -> 쥐 제시 -> 울고 빨리 피함

5일후 - 토끼, 개, 모피코트에 같은 조건 반응:
왓슨의 머릿칼, 산타클로스 마스크

5일후: 일반화 테스트

1개월 후: 직접 조건화, 일반화 조건화 지속

00-0-1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공포조건형성 실험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버트라는 아기를 생후 9개월인데 큰 소리만 무서워하지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인데 실험 장면에서 데려가면, 첫 시행에는 쥐가 나와도 아이가 쥐를 겁내하지 않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 때 갑자기 큰 소리를 쾅 울려주고, 쥐하고 큰 소리를 짝지어서 제시하는 것을 다섯 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쥐만 제시해도 아이가 울고 빨리 피하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5일 후에는 쥐뿐만 아니라 토끼, 개, 털 있는 모피코트에서 조건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왓슨의 머리칼, 산타클로스 마스크 같은 털, 수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포반응을 보이는데 1개월 후에 봐도 그런 반응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에 대한 공포 반응이 없다가 큰소리와 연결되니까 쥐라는 것에 대한 공포반응이 조건형성되서 공포 조건

이 형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9-2강 file no.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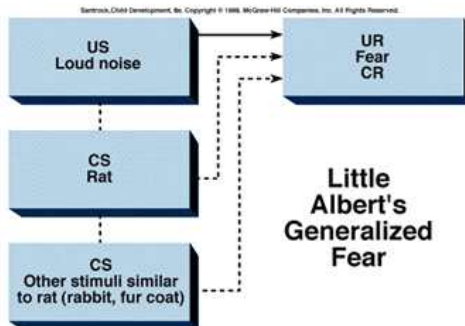
- 공포증은 조건형성된 정서반응이거나 아니면 이의 일반화 반응임
- 프로이트가 이야기할만한 공포이론을 조롱함
- 일반인들에게는 이 실험 내용이 과장, 왜곡되어서 전달됨
- 후에 Mary Cover Jones의 정서 역조건형성 실험연구와 흔히 혼동되어서 이야기됨

09-2-1

이러한 공포증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건형성된 정서 반응이거나 그것이 일반화된 반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프로이트가 식의 공포이론을 조롱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있어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실험내용은 마스크를 통해서 상당히 일반인들에게 과장 또는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영문으로 공포조건형성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US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큰소리에 대한 공포반응)이 있고, CS 조건자극인 쥐를 보여주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연결되어서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CS 조건 자극이 다른 유사한 자극, 토끼라든지 모피코트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화 되어 아이가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9-2강 file no.28



09-2-1

<http://psychclassics.yorku.ca/Watson/emotion.htm> 에서 이 연구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볼 수 있습니다.

9-2강 file no.30

4.4. 학습과 본능, 육아



초기의 그의 이론에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이 도입 안됨
1915 이후 이를 지지함
학습의 원리로는 접속성을 강조함
인간행동이 환경에 의해 조성됨을 강조하여, 본능이라는 개념이 심리학에서 불필요함을 주장
이는 본능 이론을 주장한 McDougall 등의 입장과는 반대되고
동물생태학의 Lorenz 등의 입장과 반대됨

00-E-1

9-2강 file no.31

육아



Care of infant and child, 1928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에서
행동주의의 조건형성식 육아방식을 도입하여
육아를 할 수 있다고 봄
환경 영향의 강조
당시의 다른 아동심리학자들과 대립되나
세상에 알려짐

00-E-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육아 사진도 있고 육아 장면이 나오는데, 왓슨은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조건형성에 의해서 어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든 아기만 주어진다면 자기가(부모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키울 수 있다, 즉,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에서 행동주의의 조건형성 식 육아방식을 도출하고 그걸 도입해서 어떤 아이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아이의 성격 특성, 행동 특성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해서 이것이 그 당시 미국에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ive me a dozen healthy infants, well-formed, and my own specified world to bring them up and I'll guarantee to take any one at random and train him to become any type of specialist I might select--doctor, lawyer, merchant-chief, and yes, even beggarman and thief, regardless of his talents, penchants, tendencies, abilities, vocations, and race of his ancestors." (1930)

09-2-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왓슨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나에게 건강한 어린 아이를 10여명을 달라. 그러면 그 아이들을 조건형성에 의해서 부모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능력을 갖게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키워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5. 광고심리학

New York으로 옮겨서,
J. Walter Thompson
광고회사에 취직,
광고와 광고 효과에 대하여
연구
1935에 다른 광고회사의
CEO가 됨



09-2-1

다음에 광고심리학 주제가 이야기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왓슨은 자기가 가르치던 대학원생과 스캔들이 있어서 대학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광고계로 나아가 월터 & 톰슨이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광고와 광고 효과에 대해서 심리학적 연구를 했고 1935년에는 광고회사를 자기가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을 광고계에 적용한 연구를 하고 계속 이 러저러한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광고를 통한 소비자활동의 통제

<- 정서적 조건형성

소비자의 해부:

심리학의 광고에의 응용

공포, 섹스어필 등의 방법 사용

인구통계정보 사용, 유명인(무조건자극)의 지원광고

소비자가 담배 식별 못하는 것을 보고, 성공적 마케팅은 이성
이 아니라 욕구 창조에 의존함 파악

그러나 여러 광고 방식을 창안하였다기 보다는 이전에 사용
하던 방식을 각광받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평

09-2-1

그는 광고를 통한 소비자 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정서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소비자의 심리를 해부하는데 소비자의 심리가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반응하도록 심리학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라든지 섹스어필을 광고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고, 인구 통계정보의 사용이라든지 유명인의 지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유명인은 누구나 관심 있게 되니까 일종의 무조건 자극이 되지요.)를 보여주고, 또 소비자가 담배 식별 못하는 것을 보고 성공적인 마케팅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 욕구 창조에 의존함을 파악하여 광고심리학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광고계의 입장하고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여러 광고방식을 새로 창안했다기보다는 이전에 사용하던 어떤 방식을 각광받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그런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사진에서는 광고회사를 차리고 경영주가 되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왓슨이 다니던 대학에 왓슨의 기념비를 만든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9-2강 file no.35



9-2강 file no.36

Watson 요약

Thorndike, Loeb, Jennings, 러시아 심리학, Dewey, Angell의 영향 받음
Behavior(1914);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Behaviorist (1919)" Behaviorism(1924)
인간이 중심 위치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접근 버리고 동물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인간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요구됨:
내성법은 부적절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거나, 인간과 같은 정서가 있다고 보는 동물 심리 접근은 잘못된 것임
생리심리학 중요성 강조
파블로프 조건형성 이론 도입;
Thorndike의 reward 개념에 punishment 개념 추가

09-E-1

다음 슬라이드에 왓슨이 공헌한 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을 보자면, 그는 Thorndike, Loeb, Jennings, 러시아 심리학, Dewey, Angel 등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주의를 시작을 시켰고, [행동주의 관점에서 본 심리학]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행동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이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의 접근을 버리고 동물 중심으로 심리학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과 인간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내성법은 부적절하고 그 대신 객관적 관찰, 실험방법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거나 인간과 같은 정서가 있다고 보는 동물심리학적 접근은 잘못된 것이고 그냥 행동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고 보았고, 또한 그는 생리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나 '마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중심으로 심리학을 접근하여야 되고 행동의 모든 특성이 결정되는 것은 생리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파블로프 조건형성이론을 도입하고 손다이크의 보상(Reward) 개념에 벌(Punishment)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손다이크는 보상 개념을 쓰고 벌 개념을 쓰다가 벌 개념을 나중에 버렸는데 다시 왓슨이 이것을 추가하여서 조건형성에 벌이 중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개한 것입니다.

9-2강 file no.37

4.6. 왓슨의 공헌 종합



비록 새로운 것은 없지만, 왓슨의 행동주의 천명은,
 이미 미국 심리학에 눈에 띄이지 않게 스며들고 점령하
 기 시작하던 실증주의적 행동주의적 움직임에, 뚜렷한
 명칭을 부여하고,
 의식이 아닌 행동이 심리학의 연구주제임을 확실히 함.
 내성적 방법을 버릴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여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됨.
 비판:
 (-) 사고/언어 = 근육운동 이론의 문제점
 그러나 이 모두가 왓슨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루어졌을 것이라
 는 평가가 있음.

9-2-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왓슨의 심리학적 공헌을 종합하여 제시하는데, 왓슨의 입장은 비록 새로운 것은 없지만 - 왜냐하면 자극 반응 연결을 봐야한다. 라는 것은 이전에 유럽의 생리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관찰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유럽의 실증주의자들이 이미 얘기를 한 것이고 등등으로 해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지만 -, 왓슨의 행동주의심리학의 공표(천명)는 이미 미국 사회 일반에 퍼지고 있던 실용주의적 관점이라든지 실증주의적 관점, 동물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서 일어나던 행동주의적 움직임, 즉 이 미 무언가가 변화되고 있던 것에 뚜렷한 명칭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의식을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서 하나의 큰 움직임으로 결집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의식이 아닌 행동이 심리학의 연구 주제임을 확실히 보여줬고, 내성적 방법을 버릴 정당화 근거를 마련해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왓슨은 인간의 사고나 언어도 근육, 뇌나 발성기관의 근육운동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입장은 후에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왓슨이 없었으면 행동주의심리학이 안 이루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 왓슨이 없었어도 행동주의심리학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후세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무언가 새로 창조했다기보다는 왓슨 이전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모아서 그것을 통일적 틀로 제시하고 행동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행동주의심리학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 행동주의에 대한 반응:

가. 1913-1918

-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왓슨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에 초기에는 심리학자들의 뚜렷한 반응이 거의 없었음
 <- 이유: 이미 행동 강조, 객관적 관찰 강조, 생리학 강조의 지적 분위기는 당시의 미국 학계에 팽배하여 있기에, '새로운 것이' 없었음.
- 왓슨이 조금 지나치게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왓슨이 반대한 구조주의와 행동주의의 중간 입장을 전개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음 (Mary Calkins)
- 사고를 후두운동반응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증 예: 후두가 없는 사람도 생각, 후두 근육 마취해도 생각
- 왓슨은 이런 비판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면서, 새로운 출구 모색: 이전에는 도입 안했었던 파블로프의 조건형성연구 패러다임을 행동주의 연구 틀로 도입

09-2-1

그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이 막 일어서기 시작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왓슨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초기에는 심리학자들의 뚜렷한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물심리학 등을 통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입장이 상당히 퍼져있고, 객관적 관찰이나 생리학을 강조하는 입장, 그러한 지적인 분위기는 이미 미국 학계에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왓슨이 주장하는 것이 별로 새로운 것이 없었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 이외에는 왓슨이 별로 공헌한 바가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왓슨이 지나치게 멀리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왓슨이 반대한 구조주의와 행동주의의 중간 입장을 전개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사고를 발성기관이 있는 후두의 근육운동반응으로 왓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증 예가(후두가 없는 사람도 생각하고 후두 근육이 마취되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증거 등) 제시되었고 사고까지도 근육운동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왓슨은 반격을 가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도입을 안했던 파블로프의 조건형성연구 패러다임, 뇌의 신경 심리적 반사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자기 틀을 발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1919년 이후 1930년대 즉 1차 대전 이후에는 행동주의가 옳으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나갔고 어떤 행동주의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행동주의는 통일적인 패러다임적 움직임은 아니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리-행동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산만한 움직임이었다는 이러저러한 비판이 있었는데 왓슨 다음에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행동주의의 여러 형태가 산만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적 환원주의, 의식이나 마음 모든 것을 생리적 메카니즘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는 그런 입장, 방법론적 행동주의, 의식 경험이 사실은 존재하지만 연구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동 연구를 하는 심리학과 의식 연구를 하는 심리학을 두 개가 같이 존재하

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급진적 엄밀한 행동주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내성적인 그런 심리학을 배격하는 급진적인 그런 행동주의도 제기되었습니다

W9-2강 file no.39



나. 행동주의의 재정립: (1919-1930)

- 1차대전 이후에는 행동주의가 유희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났고, 어떤 행동주의로 전개할 것인가가 논의됨.
- 그렇기는 하나 행동주의는 통일적인 패러다임적 움직임은 아니었다는 비판도 있음.
- 심리-행동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산만한 움직임이었다는 비판
-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행동주의의 여러 의미가 산만하게 제시됨
- 1.생리적 환원주의: 의식, 마음 모든 것을 생리적 메커니즘으로 환원하여 설명 가능
- 2.방법론적 행동주의:
 - 의식 경험의 사실은 존재하나 과학적 연구 불가
 - 이는 행동연구 심리학과 의식연구 심리학의 병존을 인정하는 문제있음
- 3.급진적(엄밀한) 행동주의: 의식의 사실도 존재하지 않음

09-2-1

9-2강 file no.40



다. 형태주의 심리학에 의한 반발

‘자극-반응’을 넘어선 전체가 중요
인지가 중요

라. 신행동주의 심리학의 탄생

Hull, Skinner 등

09-2-1

이후에 행동주의 심리학과 형태주의 심리학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를 전후해서 형태주의 심리학이 독일에서 형성이 되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지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아주 작은 단위를 강조하였는데, 형태주의 심리학은 그 것을 넘어선 큰 단위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을 강조했습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의 반발과 대립적 이론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발전해서 헐(Hull), 스킨너(Skinner)와 같은 신행동주의(neo-behaviorism) 심리학이 발전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더 발전시켜서 체계화한 입장이 [신행동주의] 입장인데 이것은 다음 다음 주(제 11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문제점

- 행동을 자극과 반응요소의 말초적 사상에만 국한시킴.
- Watson의 양육에 관한 문제비판
 - 원하는 성격으로의 양육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
 - 유기체의 유전적 요소를 무시
 - 바람직한 성격에 관한 기준이 모호
- 심리학을 물리학과 생리학으로 단순 환원
- 의식이 결여된 상태의 행동법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동주의 심리학의 공헌

- 학문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공헌
- 조건형성의 원리를 적용 행동수정기법으로 행동질환을 치료 가능성을 예언
- 심리학을 마음의 과학에서 → 행동의 과학으로 정의함
- 심리학을 공공의 이익에 적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후대 심리학의 연구방법과 방향을 제시함

9-2-1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강의의 전체적인 종합으로써 행동주의 심리학의 문제점과 공헌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문제점은 첫째는 행동을 자극과 반응 사이의 말초적 사건, 주로 근육 운동 사건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말초주의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왓슨의 어린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원하는 성격으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했다 라든지 또한 유전적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환경적 요소에서 모두 다 결정된다는 행동주의의 입장은 지나치다는 것과, 그리고 바람직한 성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리학을 물리학과 생리학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너무 단순했다는 비판입니다. 의식이 결여된 상태의 행동 법칙을 거론하며 행동 법칙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비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이 공헌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학문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을 했으며, 조건형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행동수정 기법으로 행동 질환을 치료 가능성을 예언을 해서 행동수정 기법이 발전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했고, 심리학을 [마음]의 과학에서 [행동]의 과학으로 정의하게끔 하는데 공헌을 했고, 심리학을 공공의 이익에 적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응용]심리학으로 활용되게끔 하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은 하나의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후대의 (특히 미국의) 심리학에 실험과학적 연구 방법과 방향을 제시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 행동주의 이론가들의 링크가 제시되어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이번 주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형태주의 심리학 (Gestalt Psychology)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있는 학습정리는 각자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LISTED BY THE MAIN APPROACH (PERSPECTIVE) FOR WHICH THE THEORISTS ARE KNOWN

ATTACHMENT THEORISTS

Mary Ainsworth
Harry Harlow
Konrad Lorenz

BEHAVIORAL THEORISTS

Behavioral Approach

Albert Bandura
Robert Gagne
Harry Harlow
Ivan Pavlov
B. F. Skinner
Edward Thorndike
John B. Watson

BI/ETHOLOGICAL THEORISTS

Bi/Ethological Approach

Charles Darwin
Konrad Lorenz

09-2-1

9주-2회차 학습 정리



1. J. B. Watson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심리학을 확실한 경험적 과학으로 확립하려 하였다.
심리학의 주제는 의식이 아니라 행동
심리학의 방법은 내성법이 아니라 행동관찰실험
모든 심리 현상은 자극-반응의 행동 단위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공포조건 형성, 학습 일반, 육아, 광고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 그러나 일반인들이 왓슨의 입장에 매료된 것과는 달리, 당시의 학계는 왓슨의 입방에 대하여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형태주의 심리학과 대립
신행동주의 심리학의 발전 등에 의하여 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이 부각되고 인정되게 되었다

09-2-1